

서울당서 초등학교 2학년3반 윤준식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아침에 비바람이

제목 : 자전거 탄날

붓고 오후에는 맑음

오늘 4시쯤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에
갔다 5분재 타고 있는데 날은 들판이
나왔다.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클리브,
야구공, 축구공을 들고 놀았다. 처음에 캐치볼
을 했다. 형이 높이 던진 공을 내가 잡
아서 아버지가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
좋았다. 야구를 20분쯤 하고 축구
를 했다. 형이 나를 지도해 줬다. 왜
냐하면 내가 6월 2일에 축구대회를 하기
때문이다. 축구는 패스만 했다. 형은
내 패스 속도가 느리고 이대로 경기
나가면 우리팀은 공이 금방 뱉어 예
선 탈락한다고 말했다. 그래서 나
는 열심히 했다. 저번 2012년 10월 17일
축구 대회 때는 3위를 했다. 나는 아쉬워
서 이번 축구 대회 때는 더욱 노력해서
꼭 1등을 해야겠다.